

오키나와엔 날마다 비... 실내연습장서 훈련 또 훈련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스프링캠프에 이어 마무리캠프에서도 '날씨'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됐다.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캠프가 마련된 일본 오키나와에 연일 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엑스트라 훈련이 취소됐다. 12일에는 오전에 급히 스케줄이 변경됐다.

원래는 두 번째 라이브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야간에는 실내 연습장에서 자율 훈련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3일째 비가 이어진 탓에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않아 새로운 스케줄이 나왔다.

투수조들이 먼저 실내연습장에서 워밍업을 한 뒤 러닝과 컨디셔닝 훈련을 소화했고, 이어 야수진이 가세했다. 워밍업과 컨디셔닝으로 몸을 풀 야수들은 이후 조를 나눠 타격, 수비 훈련 등을 소화했다.

오전 훈련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날 오후 7시부터 예정됐던 야수진의 야간 훈련도 취소됐다.

KIA는 스프링캠프에서도 날씨 때문에 고전했다.

사막 지역인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서 훈련이 진행됐지만 캠프 중반 예상치 못한 이상 기후가 찾아오면서 눈이 내리기도 했고, NC 다이노스와 예정됐던 두 차례 연습경기는 비로 치러지지 못했다.

미국에 이어 2차 캠프지인 일본으로 건너가는 과정도 험난했다.

비에 오락가락 날씨 '고전'

실내에서 타격·수비 훈련

4일 훈련·1일 휴식 일정 '빠듯'

투산에서 LA 공항을 거쳐 오키나와로 이동하려던 계획이 눈보라에 막혔다. LA에 34년 만의 눈보라 경보가 내려졌고, KIA 선수단이 탄 비행기가 두 차례 착륙 시도 끝에 인근 공항으로 우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눈보라 속에서 비행기가 급하강하는 등 상공에서 40분가량 긴박한 시간을 보냈던 KIA는 예정에 없던 '1박'을 한 뒤 어렵게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예약했던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면서 일본에서 예정됐던 연습경기 일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마무리캠프에서도 날씨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키나와의 11월은 대체로 맑고, 한낮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는 초여름 날씨다. 낮에는 무덤덤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운동을 하기에는 최적의 날씨.

좋은 날씨에 맞춰 11·12일에는 유명 자전거 대회인 '투르 드 오키나와'가 열리면서 해변을 달리기 위해 많은 이들이 오키나와를 찾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11월에는 유독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예년 캠프와는 다른 날씨지만 지난 1월 KIA의 캠프지인 킨 야구장에 대규모 실내 연습장이 완공되면서, 그나마 날씨 영향은 최소화됐다.

11일 캠프 첫 라이브 훈련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던 KIA는 비로 잠시 호흡을 고르게 됐다. '4일 1일 휴식'의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던 선수들에게는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캠프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 실내연습장에서 12일 선수들이 실내 훈련을 하고 있다.

반가운 단비가 됐다. 꽤 많은 비가 내렸던 10일은 선수단 휴식일이었고, 11일에는 훈련 시작 전·후로 비가 쏟아지면서 엑스트라를 제외한 모든 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3일째 비가 내린 12일 마침내 '하프데이'가 되면서 선수들은 오전 훈련 뒤 모처럼 자유의 시간을 보냈다. 첫 해외 캠프에 참가한 2023신인 내야수 정해원

은 "훈련이 일찍 끝나서 좋다. 모처럼 낮잠을 잘 수 있게 됐다. 하프데이니까 잘 쉬고 다시 달리겠다"며 밝은 표정으로 속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wool@kwangju.co.kr

“부족 부분 채워 타이거즈 색 만들겠다”

KIA 심재학 단장 인터뷰

KIA 타이거즈의 심재학 단장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2024시즌 밑그림을 그렸다. 심 단장은 지난 9일 오키나와 마무리캠프를 찾았다.

스카우트 팀과 동행한 심재학 단장은 연일 김중국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머리를 맞댔다.

이번 일본행 목적 중 하나가 2차 드래프트 명단 확정이다. 4년 만에 2차 드래프트가 부활하면서 각 팀은 명단 짜기에 바쁘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각 구단은 외국인선수, FA 신청선수, 1~3년차 선수, 지명 시행 전 FA 보상 선수로 이적한 선수를 제외한 35명의 명단을 KBO에 제출해야 한다.

3~4명 정도 의견이 엇갈린 선수가 있는 만큼 프런트와 현장 스태프가 함께 최종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심 단장은 캠프지를 찾았다.

심 단장은 "현장 프런트와 생각을 맞추려고 왔다. 보충 선수로 누구 남겨두고 누구를 잡아야 할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캠프지 확인도 심 단장의 방문 목적 중 하나. 지난 5월, 시즌 중반 단장직을 맡았던 만큼 KIA의 캠프지인 킨 구장과 숙소를 처음 찾아 전반적인 시설과 현황 등을 살폈다.

심 단장은 "운동장, 호텔,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체크하고 캠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KIA는 올 시즌 막판 5강 싸움에서 밀리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결과, 과정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구단은 해외 캠프라는 '통 큰 투자'로 기대감을 보였다. 최근 비가 이어진 게 어렵지만 따뜻한 기온에서 실·내외 운동장을 모두 활용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반갑다. 선수들도 좋은 날씨 속에서 부상 염려 없이 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심 단장은 "광주·함평이 많이 추운데 따뜻한 날씨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구단에 내년에 대한 기대치로 투자를 할 것이다"며 "시즌 중반 단장을 하면서 팀을 파악하는 기간이 있었다. 방향성, KIA의 색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팀 기조를 가지고 단장, 감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KIA의 색을 만들어야 한다. 구단의 큰 틀에서 감독과 단장은 취약한 부분을 때워야 한다"고 말했다.

올 시즌 실패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돌아본 심 단장은 부족한 부분을 위해 내야수와 선발 이닝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2년간 타격 수치가 나쁘지는 않다. 내야수 쪽, 볼펜 과부하 안 걸리게 하기 위해 이닝 채울 수 있는 선발들을 때워야 한다. 당장 채우는 게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장은 2군의 팜을 만드는 것이다. 올해 엔트리 교체는 적었는데 젊은 투수들 팜은 어느 정도 됐다. 이들을 빠르게



올려서 쓸 수 있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함평에서 많이 보내겠다"고 말했다.

실전을 통해 성장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실행하고 있다. 17일 개막하는 호주 프로야구 리그 ABL에 김기훈, 김현수, 홍원빈, 광도규(이상 투수)와 내야수 박민 등 5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마무리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김기훈은 새 투수 코치들과 제구적인 부분을 가다듬은 뒤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 내야수 윤도현도 시즌 중반 캔버라로 보내 내야 경쟁에 힘을 보태게 할 계획이다.

심 단장은 "캔버라 구단과 상의해 소화하는 이닝, 훈련 스케줄 등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소화할 수 있게 했다. 이정호 코치도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다. 호주 리그 수준이 낮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시즌 변화가 있는 만큼 이에 맞춘 움직임도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KIA는 피치 클락 도입 움직임에 맞춰 시즌 중반부터 퓨처스리그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했다. 베이스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캔버라 구단에 이에 맞는 베이스 설치를 부탁하고, 예산을 투입했다. 키움 시절 제자 김하성에게도 많이 듣고 있다.

심 단장은 "하성이가 메이저리그에서 먼저 경험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다. 투수보다 타자들이 힘들다고 한다. 원스트라이크 먹고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서 타자들이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타석에서 바로 치는 연습을 하도록 주문했다"며 "ABS 시스템도 잘 살펴보고 있다. 이 시스템에 따라 코너를 찌르는 투수가 유리할지, 구위로 누르는 투수가 유리할지를 파악하면서 외국인 투수도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 리스트를 빠르게 입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내년 시즌 팀의 바탕이 되어야 할 오키나와 캠프 선수단의 움직임이 만족스럽다.

심 단장은 "훈련에 참가한 고참 선수들도 진지하게,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다. 연습 양보다 질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훈련량도 더 늘었고, 코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다"며 "투수들은 새로운 스케줄 처음 해보니까 신기해한다. 내년엔 역할을 해줘야 할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각각의 미션을 주고 있다. 올 시즌 부족했던 부분 잘 채우고, 타이거즈 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펜싱 사브르 오상욱, 시즌 첫 월드컵서 개인전 은메달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의 간판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이 새로운 시즌 첫 국제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상욱은 11일(현지시간) 알제리 알제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사브르 월드컵 남자 개인전에서 블라드 아피티(프랑스)에 이어 준우승했다.

오상욱은 올해 4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그랑프리대회 이후 FIE 주관 국제대회 개인전에서 약 7개월 만에 입상했다.

그 사이 오상욱은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 선배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결승 맞대결 승리로 금메달을 따내고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이끌어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지난달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개인·단체전 모두 우승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뽐냈던 오상욱은 내년 파리 올림픽으로 이어질 2023-2024시즌 첫 국제대회부터 개인전 시상대에 서며 전망을 밝혔.

이날 오상욱은 16강전에서 일라이 더쉬워츠(미국)를 15-9, 8강전에서 콜린 히스콧(미국)을 15-14, 준결승에선 피에트로 토레(이탈리아)를 15-8로 연파하는 등 결승까지 승장구했으나 아피티와의 결승전에서 14-15로 졌다.

함께 출전한 하한솔(성남시청)은 13위, 김재원(대전대)이 15위에 올랐고, 구본길은 35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12일 강원 춘천에 위치한 라비에벨CC에서 열린 'SK실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 2023'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한 임진희가 동료들로부터 축하받고 있다.

임진희, 시즌 최종전 우승 4승 '다승왕'

KLPGA투어 SK 텔레콤 오픈

'내가 다승왕' 임진희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극적으로 다승왕에 올랐다.

임진희는 12일 강원도 춘천시 라비에벨 컨트리 클럽 울드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투어

SK 실더스·SK 텔레콤 오픈(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00타로 우승했다.

이번 시즌 4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은 임진희는 이예원, 박지영 등 시즌 3승 선수 2명을 따돌리고 다승 1위를 확정했다.

SK 실더스·SK 텔레콤 오픈은 이번 시즌 마지막

대회다. 이 대회에 앞서 이예원이 삼금왕과 대상은 이미 확정했고 평균타수 1위도 사실상 굳혀 4개 개인 타이틀 가운데 다승왕 하나만 남아있었다.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던 임진희는 8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10월 상상인·한국경제TV 오픈을 차례로 제패했다. 통산 6승째.

우승 상금 2억원을 받은 임진희는 삼금랭킹 2위(11억4583만원)로 올라섰다.

임진희는 대상 포인트 2위, 평균타수 4위 등 데뷔 이후 최고의 시즌을 만끽했다.

/연합뉴스